

동남아시아 칠기(漆器)

The Lacquerwares of Southeast Asia

김인규^{*}
In Gyu KIM

I. 동남아시아 칠(漆)

칠은 옷나무를 상처를 내어 얻어낸 점성을 가진 갈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이른 시기부터 동양에서는 건축, 회화, 공예품 및 일반 생활에 쓰이는 가구 등에 도장제로서 주로 사용되어 벌레나 공기의 노출 및 외부에서 침입하는 물 등으로부터 표면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칠은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며, 화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우루시올(Urushiol, 55-70%), 폴리사카라이드스(Polysaccharides, 6.5-1.0%), 그리코프로타인(Glycoprotein, 1.4-2.8%), 엔자임(Enzyme, 0.1-1.0%), 물(Water, 20-25%)의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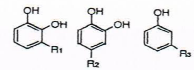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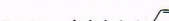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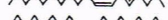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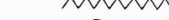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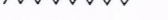
동남아시아의 칠은 동아시아의 칠과 화학구조가 대동소이하지만, 구체적인 성분에서 약간 다르다.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칠이 우루시올($C_{21}H_{32}O_2$)이 주성분인 것에 반하여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의 칠은 라콜(Laccol, $C_{23}H_{36}O_2$)이 그리고 타이, 미얀마지역에서는 찌치올(Thitsiol)이 주성분을 이룬다.(표 1 칠의 화학구조 참고)

칠의 주요성분인 우루시올은 카테콜벤젠기의 3번 탄소에 15개의 불포화탄화수소를 가지며 $C_{15}H_{26-31}$ 의 숫자가 26에 가까울 수록 양질의 옷이다. 라콜은 카테콜벤젠기의 3번 탄소에 17개의 불포화탄화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igkim@bufs.ac.kr

소를 가지면 찌찌올은 카테콜벤젠기의 4번탄소에 17개의 불포화탄화수소를 갖는다.

<표 1> 아시아 칠의 화학구조

		
C₁₅		C₁₇
R=		R=
		
4.5	22.1	54.9
		
15.0	0.3	4.9
		
1.5	1.3	15.6
		
4.4	17.3	1.9
		
6.5	4.5	17.2
		
55.4	1.5	2.4
		
1.7	4.8	1.8
		
7.4		
		
C₁₇		C₁₅
1.5		
		1.3
1.8		

한국 · 중국 · 일본

타이 · 미얀마 · 캄보디아

대만 ·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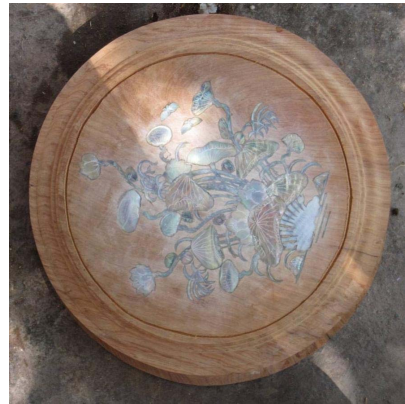
Ⅱ. 동남아시아 칠기

2.1 베트남 칠기

베트남에서 칠의 사용은 기원전 4세기경 동썬(Dong Son)문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하이퐁 베케(Hai Phong, Viet Khe) 마을에서 발굴된 관에서 목기와 칠기를 제작하는 도구가 보여 이 지역에서 칠기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지역에서 나전칠기의 기원은 북부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중심지역으로 남딘, 닌샤(Nam Dinh, Ninj Xa) 마을과 하노이 교외 चु엔 미(Chuyen My) 마을과 चु옹고(Chuon Ngo)마을이 있다. 전자의 나전칠기 창시자는 닌후흥(Ninh Huu Hung)이고 후자의 창시자는 투옹 콩 탄(Ttuong Cong Thanh)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나전기술을 창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중국의 절강이나 광둥의 나전기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사서에는 전(陳)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베트남 나전칠기의 기술이 절정에 달했고 나전의 일부가 원(元) 왕조의 공물로서 바쳤다는



<그림 1>
베트남 나전칠기 5번째
과정을 마친 상태

기록이 남아있어 늦어도 베트남의 나전칠기는 13세기전반에는 개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베트남의 나전칠기는 6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1단계는 문양을 그린다. 2단계는 나전에 쓰일 조개를 자르고 갈아 물에 불려 평평하게 만든다. 3단계는 문양에 쓰일 적당한 조개를 골라 싯톱으로 자른다. 4단계는 칠기의 바탕이 되는 나무에 문양을 새겨 넣는다. 5단계는 잘라진 조개껍질을 칠을 사용하여 문양이 새겨진 나무에 고정시킨다. 6단계는 조개껍질에 발라진 칠을 제거하고 광택제를 사용하여 연마한다.(그림 1)

이러한 베트남 나전칠기는 19세기 후반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등에 소개되는 등 오랫동안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부는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 책으로 소개되었다.(그림 2) 최근 베트남의 칠은 칠기나 나전칠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칠이나 나전을 이용한 칠회화 및 나전회화 등 새로운 영역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2>
베트남 민망(明命)
9년(1837) 나전칠기 탁자

2.2 태국 칠기

태국에서 칠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등에 방수용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칠기 및 나전칠기가 언제부터 제작되었는가에 대한 근거와 사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드와라와티 시대(Dvaravati, 8-11세기), 스리비자야 시대(Srivijaya, 11-12세기), 롭부리 시대(Lop Bury, 12-13세기), 수코타이(14-15세기)의 유적에서 칠기 등이 보이고 야유타야시대(15-18세기)에는 고도의 칠공예품이 제작되어 일반적으로 타이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칠기의 사용이 증가되고 제작기법도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태국의 칠기는 야유타야(Ayutaya)와 란나(Lanna) 지역에서 만든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야유타야 칠기는 흑칠의 바탕에 화려한 금박장식과 나전이 장식되어있는 것이 특징이고 란나 칠기는 흑칠 위에 주칠을 바르는 독특한 방식을 보이고 있다.

태국 칠기 및 칠공예품에서는 장식기법으로 금박(Lai Rot Nam), 색칠(Lai Kammalaor), 조칠(Lai Kud), 유리, 조개, 계란껍질을 이용한 나전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나전을 이용한 칠기는 야유타야 시대에 절정을 이루고 왕궁이나 사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림 3> 태국 나전칠기 19세기

나전칠기의 제작과정은 1) 야광패를 잘게 잘라낸다. 2)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표면 위에 잘라진 야광패를 붙여 문양을 만든다. 3) 문양이 만들어진 부분에 칠과 잿가루를 섞어 얇게 바르고 마르면 다시 여러번 발라 문양이 보이지 않을 때 까지 바른다. 4) 건조시킨 다음 야광패의 문양이 보일 때 까지 문질러 완성한다.(그림 3)

2.3 미얀마 칠기

미얀만의 옷나무는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있다. 이중에서 타이 국경에 근접한 산(Shan)고원은 옷나무의 산지로 유명하고 3월과 5월 사이에 채취하는 칠이 흑색으로 가장 양질의 칠로 간주된다.

미얀마이 칠기의 토대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진다. 대나무의 바깥부분을 사용하지않고 안쪽만을 사용한다. 대나무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2종류이다. 하나는 대나무를 말아 만드는 것이고 주로 호나 병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나무로 형태를 짜는 방법으로 각진 형태를 만드는데 주로 적용된다.(그림 4)

미얀마 칠기의 주요 제작지는 만달레(Mandalay) 지구의 버강(Bagan), 만달레(Mandalay), 잉와(Inwa), 저가인(Sagain) 지구의 짜웃까(Kyaukka), 마웅 다웅(Maung Daung), 산(Shan) 주(州)의 짜인퐁(Kyaingtone), 라이코(Laihko), 모네(Moe Ne), 인레(Inl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지역들은 운남의 서려(瑞麗), 로서(路西), 보산(保山), 대리(大理), 곤명(昆明), 성도(成都)로 이어지는 남방의 실크로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중국과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져, 이 지역의 칠기 역시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지역에서 칠기의 제작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만달레(Mandalay) 지구의 버강은 미얀마 최대 칠기생산지이다. 버강은 불탑과 사원이 즐비한 불교의 성지로 국내외의 순례자들이 방문



<그림 4>
미얀마 칠기,
뉴욕 자연사박물관소장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작된 칠기는 꾀잇(Kun-it 통형의 그릇), 러펫옥(Lahpet-oak, 발효차를 넣는 용기) 송옥(Hsun-oak, 뚜껑이 있고 여러 겹으로 그릇으로 구성된 기물)등이 있다. 문양의 기법으로는 카닛[Kanyit=Kinma(蒟醬), 칠기표면을 섬세한 선으로 새기는 기법], 쉐자와(Shweizawa, 금박으로 문양을 만드는 것), 떠요(Thayo, 부조기법), 흐망지쉐차(Humanzishehca, 색채 유리조각을 붙이는 방법) 등이 있다.

저가인(Sagain)지구의 짜웃까(Kyaukka)는 만달레에서 서쪽 160km 몽유와(Monywa)의 마을에서 약 15km의 위치에 놓여있다. 짜웃까는 버간에 이어 제 2의 칠기생산지이다.

이곳의 칠기는 흑칠기를 비롯한 장식이 별로 없는 소박한 칠기를 중심을 이루고 꾀잇(Kun-it), 러펫옥(Lahpet-oak), 송옥(Hsun-oak), 상자, 쟁반, 접시 등이 제작되었다. 문양은 흑칠로 문자가 무늬를 넣거나 일부는 표면에 선으로 섬세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산(Shan) 주(州)는 빠오(Pao)족, 바라웅(Palaung)족 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칠기의 제작지로는 짜잉퉁Kyaingtone, 라이코(Laihko), 모네(Moe Ne), 인레(Inle) 등이 있다. 짜잉퉁(Kyaingtone)의 칠기는 대나무로 짠 형태에 칠을 바르고 다시 그 위에 나락(벼)을 태워 만든 재를 칠과 섞어 바른 다음 그 위에 베(천)를 바른다. 그리고 나락을 태워 만든 재를 칠과 섞은 것을 나무로 잘 두드려서 반죽한 후에 평평한 나무판위에 올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다음 칠기의 표면에 발라여 입체적인 장식을 만든다. 이밖에 미얀마에서 칠은 파고다를 금박으로 장식한다든지, 가야금을 만든다든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